

EUROPE

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EUROPE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유럽 지역 각국별 방송 시장 현황』

◎ 작성취지

- 본 보고서는 MEDIA 아일랜드 데스크가 2012년에 작성한 <Drama Directory: Your guide to European TV Drama Commissioning Editors and Buyers>에 기초하여 유럽 지역 국가들의 방송시장 현황을 정리하였음.

◎ 작성순서

「유럽 지역 각국별 방송 시장 현황」(가나다 순)

- | | | |
|--------|---------|--------|
| - 그리스 | - 스위스 | - 체코 |
| - 네덜란드 | - 스페인 | - 키프로스 |
| - 노르웨이 | - 아이슬란드 | - 폴란드 |
| - 덴마크 | - 아일랜드 | - 프랑스 |
| - 독일 | - 영국 | - 핀란드 |
| - 벨기에 | - 오스트리아 | |
| - 스웨덴 | - 이탈리아 | |

『유럽 지역 각국별 방송 시장 현황』

○ 그리스

- 그리스의 방송시장은 공영방송사인 ERT와 비교하여 민영방송사의 채널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MEGA가 20.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앞서고 있으며 이는 2년간 2% 이상 성장한 수치임. ANT1이 15.8%, RTL 그룹의 Alpha TV, Alter, Star 채널이 9.8에서 12%사이를 기록하며 뒤따르고 있음. 공익 채널인 NET는 8.6%로 6위에 머물렀으며, 다른 공익 채널인 ET3과 ET1은 3.5%와 2.9%에 그쳤음.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AGB Nielsen Media Research)

- 그리스의 방송시장은 의무 지상파 채널(incumbent terrestrial channel)이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80%가 넘는 가구가 아날로그 지상파 TV 채널에 의존하고 있음.
- 공영방송사 ERT는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음. 2011년 4월 Sport+와 Cine+의 합병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2011년 8월 제 1 방송채널인 ET1의 폐쇄와 지역 방송국의 규모 축소, 직원 감축 등의 조치가 발표되었음.
- 케이블 네트워크의 부재로 유료 TV 서비스는 Multichoice Hellas의 Nova 위성 패키지가 독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서비스 사용자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그리스의 유료 TV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Multichoice Hellas는 최근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위성 패키지를 통합하였음. 이러한 시장 상황은 2011년 10월 OTE TV 패키지의 런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는 공영 방송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Ned1, Ned2, Ned3, Ned 24등의 디지털 채널이 이 방송사의 소속임. 룩셈부르크 방송법을 준수하는 RTL 그룹의 채널 RTL4, RTL5, RTL7, RTL8, RTL Lounge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세 번째 방송 사업자는 ProSiebenSat.1 Media AG에서 Joop de Mol의 Talpa Media group(핀란드의 Sanoma 그룹 소속)으로 인수된 SBS Broadcasting임. SBS Broadcasting은 NET5, SBS6, Veronica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NED1의 일일 시장 점유율이 1.5% 상승함에 따라 해당 채널의 시장 점유율이 21.5%에 도달함. 이는 2008년의 자체 기록을 갱신하는 것임. 민영 방송사의 채널 RTL4와 SBS6이 14.4%, 10%를 기록하며 뒤따르고 있음. 2,3위 채널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2년간 상승세를 보였음. 그 외에도 공익 채널 NED2, NED3이 7% 전후, NET5, RTL7, RTL 5, Veronica 등 민영 채널들이 3-5% 대를 기록함. 그 외의 여덟 개 채널은 1-2% 정도에 머무름.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Stichting Kijkonderzoek)

- 네덜란드의 공영 방송 시스템은 20개의 국영 방송사들과 350개의 지역 방송사들로 이루어져 있음. 2010년 12월 16일 EU의 일반 법령에서는 네덜란드 당국과 네덜란드 방송 협회 (Dutch Broadcasting Foundation, NOS)가 제기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음. 이에 대해 네덜란드의 상업방송국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자, 유럽 위원회는 네덜란드의 공영방송사들의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해 조사하였고, 결과적으로 NOS는 7만 6천 3백 27 유로와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불할 책임을 안게 됨.

○ 노르웨이

- 3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사 그룹인 NRK의 일일 시장 점유율은 2008년 37.5%에서 2009년 39.1%로 상승함. NRK1은 31.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민영방송채널인 TV2 (21.3%), ProSiebenSat.1 Media AG의 TVNorge (7.1%), Modern Times Group의 TV3 (6.1%)에 앞서고 있음.
- TV3 (MTG), Viasat (MTG), the Voice TV (ProSiebenSat.1 Media AG)는 영국에 설립된 채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램제작과 광고에 있어서 ‘국경 없는 TV 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을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노르웨이의 방송법 체제를 따르지 않아도 됨.
-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새로운 채널들이 노르웨이의 방송 시장에 진입함. 위성 TV 배급업자인 Viasat은 스포츠 채널 패키지를 개편하였고, Viasat Sport와 Viasat Motor를 폐쇄하였음. 주요 민영 채널인 TVNorge와 TV2는 HD 채널을 2008년 10월과 2009년 6월에 각각 런칭함. 2008년 10월 런칭한 Frikanalen은 2009년에 디지털 지상파 TV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채널은 비상업적 채널로서 60여개의 NGO들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유료TV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절반 이하의 가정에서 케이블 TV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73%의 가구가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IPTV 부문은 계속 발전하는 양상을 보임. 2009년 6개의 사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었음.

○ 덴마크

- 덴마크는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공영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채널 두 개(DR, TV2)의 일일 시청률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국가임.
- TV2 채널은 28.1%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DR1(19.2%)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따라서 이 두 채널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면 평균 47.2%에 달함. (2006년에는 61.9%) 다양한 전문 채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익 채널은 2006년 시장 점유율 72.4%에서 2010년 62.9%로 하락세를 보였음.
- 가장 인기 있는 민영 채널은 TV3 (스웨덴 MTG group)으로 꾸준히 5%대를 지켜옴. 기타 민영 채널로는 TV3+(3.4%)과 ProSiebenSat.1 Media AG의 Kanal 5(2009년 2.9%에서 2010년 3.4%로 성장함)가 있음.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Gallup TV meter)

- 덴마크 당국은 TV2를 2003년 5월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방송사의 재정 부문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실행이 지연되었음. 2004년 5월 유럽위원회는 TV2가 불법적인 경로로 공공기금을 수령하였고, 따라서 덴마크 당국에 8천 4백 4십만 유로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함. 이 문제에 대한 방송사의 항소로 인하여 유럽위원회의 제 1심 법원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한을 2008년 10월 22일로 미룸. 2008년 봄, 문화부는 빚에 허덕이고 있던 TV2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긴급 지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긴급 지원금은 6천 7백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2008년 8월 유럽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쳤음. 2009년 1월 정부는 2012년부터 TV2를 유료채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독일

-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방송 시장 중 하나이며 매우 경쟁이 치열함. 2010년 말 기준으로 3천 7백만 가구 이상이 TV 세트를 갖추고 있고, 그 중 50.2%가 케이블 TV를, 44.7%가 위성 TV를 시청함. ALM(Association of State Media Authoritie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경 디지털 TV의 시청자는 68%에 육박하였음.
- 시청률을 고려했을 때, 공익채널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 ARD와 ZDF는 도합 25.9%의 시청률을 기록했음. 이는 2006년 27.5%보다 하락한 수치임. 2010년 처음으로 RTL이 ARD를 0.4%라는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1위 채널의 자리에 오름.

(시청률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AGF/GfK)

- 2011년 7월 케이블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는 43%에 달했음. 최근 몇 년간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사업자 수가 넷으로 축소됨. 그 중 가장 큰 사업자인 Kabel Deutschland는 2011년 6월 기준 8백 70만 명의 사용자를 기록했음.
- 2010년 12월, German Inter-State Broadcasting Treaty의 15차 개정은 공영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징수의 개혁과 관련하여 변화를 가져옴. 독일 수상은 2010년 6월 수신기의 개수가 아닌 세대별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이는 201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짐. 이후 Inter-State Broadcasting Treaty에서는 소규모 사업자 보호와 미디어 집중에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것임.

○ 벨기에

- 벨기에에는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플랜더스, 불어, 독일어 지역으로 나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언어별로 개별적인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이 세 개의 시장은 모두 주변 국가들의 채널들을 수신할 수 있으며, 각각 시장을 대표하는 공영 사업자가 있음. (VRT, RTBF, BRF)
- 플랜더스 지역의 대표 사업자는 VRT로서, Eén, Ketnet, Canva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업자인 VMMA는 VTM, 2BE, Anne, Jim, vtmKzoom을 운영하고 있음. Eén은 일일시청률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28.7%, 2010년 33%) VTM이 20.4%로 2위를, Ketnet/Canvas(오전, 오후 시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저녁시간에는 문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채널)이 그 다음을, VT4와 2BE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해
- 불어권에서는 RTBF(La Une, Da Deux, La Trois), RTL 그룹 (RTL-TVI, club RTL, Plug RTL), AB 그룹(AB3, AB4, AB shopping)이 주요 사업자들임. RTBF는 2010년 소유하고 있는 채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정에 들어감. 2월 RTBF의 인터넷서널 채널인 RTBF Sat의 송출을 중단하고, 위에 언급된 세 채널의 HD 버전을 5월에 런칭하고 9월에는 La Trois의 프로그램을 개편하였음.
- RTL-TVI은 21.5%의 일일시청률 (황금시간대 28.8%)로 채널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함. 그 뒤를 RTBF의 La Une이 14.5%로 따르고 있으며, 나머지 채널들은 5% 미만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합산했을 때 시청률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시청률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CIM/GfK Audimetrie SA)
- 독일어권에서는 약 7만 4천명 시청자들의 대다수가 독일 TV 채널을 시청함
- 벨기에에서는 100%에 달하는 가구가 유료 TV를 시청하고 있음. 이는 해당 국가의 케이블 네트워크 때문임.

○ 스웨덴

- 스웨덴 방송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공영사업자인 SVT, 민영 미디어 그룹인 Bonnier (TV4, Nordic Canal +채널), MTG(TV, TV6, TV8, TV1000, Viasat 채널이 있음. 이 중에서 몇 개의 채널은 영국에서 송출됨), 독일 그룹인 PreSiebenSat.1 Media AG(영국에서 송출되는 Kanal5, Kanal 9 채널을 가지고 있음)가 있음.
- 2009년 공익채널인 SVT1이 TV4(19.2%)를 앞지르며 20.9%로 시장점유율 1위를 탈환하였고, 2010년 23.2%로 추가 상승했음. 공익채널 중 2위를 차지했던 SVT2는 시장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절반으로 떨어지며 (6.9%) 2009년 TV3(8.1%)에 3위 자리를 내주었음. 그 뒤를 Kanal 5, TV6, TV3이 따르는 양상을 보임.
- 위에서 언급된 여섯 개 채널의 시청률을 합산하면 2006년에는 80%에 가까웠으나 2010년에는 69.4%에 그침. 방송 사업자들이 전문 채널의 수를 늘린 것을 이유로 볼 수 있음. 사업자별로 시청률을 계산해 보면 SVT의 채널 여섯 개는 2006년 39.3%에서 2010년 35.2%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했고, TV4의 9개 채널은 2010년 26%에서 31%로 상승하였음.

(시청률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MMS Meadiamatning | Skandinavien AB)

- 통신 분야의 사업자로 스웨덴의 MTG그룹, TeliaSonera, Teracom, Com Hem(케이블 사업자, 노르웨이의 Telenor 그룹이 있음).
- 2007년의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를 변경한 새로운 라디오와 TV 법률이 2010 1월 발효됨. 이 법률은 광고, 스폰서, 간접 광고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밝히고 있음. 또한 라디오와 TV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던 Radio-och TV-Verket(RTVV)와 Granskningsnamnden for radio och TV (GRN)를 대체하여 Myndigheten for radio och TV가 신설됨.

○ 스위스

-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이 모여 형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로망스어임. 스위스의 방송 시장은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채널들이 점유하고 있음. 공영방송사인 SRG SSR idee suisse는 7개의 채널을 통해 4개 언어로 된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이윤을 창출해 내고 있음.
- 5% 미만의 가구가 지상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채널 플랫폼이 중요함. 스위스의 케이블 사업자 협회인 Swisscable에 따르면 92%의 가구에서 케이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음.
- 스위스의 IPTV 시장에는 Swisscom, Orange, Sunrise, 그리고 2011년 3월부터 시장에 진입한 ISP Cyberlink에서 제공하는 4개의 플랫폼이 있으며, 2010년 봄부터 Swisscom의 컴퓨터 스크린으로도 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위성 TV는 크게 CanalSat Suisse, Sat-access 두 곳에서 패키지를 제공하며, 2011년 4월 CanalSat은

HD 채널 패키지를 시장에 선보였음.

○ 스페인

-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로 스페인의 방송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음. 예로 몇 가지를 들면, 2008년과 2009년의 시청률 랭킹 발전, RTVE의 개편, Cuatro 와 Telecinco의 합병, 전문채널들의 급격한 수 증가, 아날로그 지상파 송출의 중단 등이 있었음
- 공익채널인 TVE의 La Primera는 2009년 일일 시청률 16.4%를 기록하며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며 2010년은 16%를 기록함. 이탈리아의 방송 그룹인 Mediaset의 채널 Telecinco는 2006년보다 6% 이상 하락한 14.6%에 그쳤음. Planeta de Agostini 와 Bertelsmann 그룹 소유의 채널 Antena 3은 11.7%로 3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나 역시 시청률이 2006년 대비 7% 이상 하락하였음.
- 최근에 시장에 진입한 스페인의 아날로그 지상파 landscape은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나갔음. Cuatro(2005년 Canal+를 대체함)는 7%, La Sexta(스페인-멕시코 합작으로 2006년에 개국)는 6.6%를 기록함. TV2가 일일 시청률 3.1%을 기록함.
- 공익채널인 Autonomous Communities는 심각한 하락을 경험하였음. 전체 시장 점유율은 2006년 15.4%에서 2010년 11.2%로 하락하였음. 이러한 공익 채널의 시청률 하락의 원인은 전문 채널의 급격한 증가에서 찾을 수 있음. Antena, Neox, Disney 등의 전문 채널은 2006년 매우 적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이제 2%대로 증가하였음
(시청률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 Kantar Media)
- 2010년 봄, 6년에 걸친 조정 끝에 규제 기관인 Consejo Estatal de Medios Audiovisual을 신설하는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방송 관련 법규가 채택되었음. 해당 기관은 2011년 6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Partido Popular 당은 2011년 11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시 해당 기관을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

○ 아이슬란드

- 1966년 Icelandic TV의 설립 이후로 아이슬란드의 방송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향을 보임. 아이슬란드 국민의 수가 적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용이 해외 방송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임. 그러나 아이슬란드 현지의 프로덕션은 양과 질 모두에서 발전하고 있음. 1995년에서 2008년 사이 주 채널 세 곳(RUV, Stöd 2, Skjárinn)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방영 시간이 1800시간에서 3,500시간으로 거의 두 배 높아진 것으로 보고됨. 이는 전체의 약 25% 정도를 차지함.
- 현재 아이슬란드에는 10개의 전국 채널이 있음. 아이슬란드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채널들은 다음과 같음(설립년도순): RUV Sjonvarp (1966), Stöd 2 (1986), Omega (1992), Stöd 2 Sport (1995), N4 (1997), Stöd 2 Bió (1998), Stöd 2 Extra (1998), Skjár 1 (1998), ÍNN (2007), Nova TV (2008).
- 아이슬란드 방송시장은 RUV와 Stöd 2의 경쟁관계로 요약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일반 채널로는 RUV, Stöd 2 와 Skjár 1이 있음. 나머지 일곱 개의 채널들은 대부분 전문 채널로서 특정 시청자 그룹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한 개를 제외한 모든 채널은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카비크(Reykjavík)에서 제작되고, N4 채널은 북쪽의 수도로 일컬어지는 아쿠레이리(Akureyri)에서 제작됨.
- 디지털 지상파 TV가 2005년 말에 보급된 후 60%의 가구에서 디지털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음. 시청자들은 7개 사에서 케이블이나 안테나를 통해서 제공하는 해외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음. 2005년 이후로 VoD 서비스가 몇몇 통신 회사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아일랜드

- 영국 채널과 사업자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일랜드의 방송 시장에서는 공영 채널들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공익 채널인 RTÉ 1과 RTÉ 2는 합산하여 2010년 시장 점유율 33.1%를 기록함 (그러나 이는 2006년보다 5% 가량 하락한 수치임). 1998년에 개국한 민영 채널인 TV3은 12.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채널임. 그 뒤로 아일랜드 어 방송인 TG4와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3e가 있음. DTT 서비스가 런칭됨에 따라, 공영방송사는 디지털 채널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음.
- 인기 있는 영국 채널 5개는 BBC 1, UTV, S4C, BBC2, Sky1로 2010년 시청률을 합산하면 15.1%를 기록함.

(시청률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 AGB Nielsen Media Research)

- 아일랜드의 DTT 런칭은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으나, 2010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음. 아일랜드의 방송 협회는 2010년 8월 발표에서 시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상업적 DTT

서비스를 배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멀티플렉스 건에 대해서는 2013년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 이후 재 런칭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음. PSB RTÉ의 멀티플렉스가 2010년 10월 시범적으로 런칭하였고, 2011년 5월 포괄적인 서비스인 'Saorview'가 제공되기 시작함. 전체 RTÉ 1, RTÉ 2, TV3, 3e, TG4, RTÉ News Now 등의 채널이 멀티플렉스 서비스 대상임. PSB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하는 채널은 RTÉjr (어린이 채널), RTÉ One +1, RTÉ Aertel Digital (teletext), 시범 HD 서비스 등이 있음.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는 2012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음.

- 2009년 통과된 방송 관련 법률은 이전의 방송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이는 Broadcasting Commission of Ireland(BCI)와 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BCC)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방송 규제 기관인 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BAI는 2009년 10월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현재 아일랜드의 공영방송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영국

- 공영채널인 BBC1이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010년의 시청률은 20.8%로서 2006년에 비해 2%밖에 하락하지 않았음. ITV1(16.6%)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영국의 방송시장은 유럽의 큰 방송시장들 중 하나로서 국내용 채널의 수뿐 아니라 해외를 타깃으로 하는 채널들 역시 많음. 영국에서 라이선스를 얻어 해외로 송출하는 채널들은 양적으로 많은 것 뿐 아니라 아랍, 아시아, 터키 지역 등 전세계적으로 매우 범위가 넓고 다양함.

(시청률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BARB/TNS UK)

- 최근 몇 년간, 미디어 그룹들의 소유주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2010년 RTL 그룹이 Channel Five를 영국 회사인 Northern & Shell에 판매하였고 (이 회사는 출판, 성인 채널 등을 취급해 왔음), 비슷한 시기에 Virgin Media가 방송 부문에서 서서히 손을 떼고 통신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함. 2010년 6월 Virgin Media는 Virgin Media Television을 BSkyB에 판매하였음. 해당 회사는 Living TV Group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음. 또한 2011년 ITV PLC가 Channel Television을 인수하였음. Channel Television은 채널 아일랜드 지역에 Channel 3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음. STV와 UTV를 제외하고 ITV PLC가 현재 Channel 3의 라이선스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 2010년 News Corporation은 BSkyB의 지분률을 높이겠다고 공식 발표함. (39%에서 100%로) 그러나 핸드폰 도청 스캔들과 의회의 압력으로 이러한 계획은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음. 영국의 미디어 그룹에 대한 소유권을 검토하기 위해 문화부의 요청으로 Ofcom이 2011년 10월 설립됨.
- 2012년 10월로 결정된 아날로그 TV 송출 중단 계획은 무난히 진행되고 있으며 HD 채널들은 아날로그 TV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중임. 현재 BBC HD, ITV1HD, Channel 4 HD, S4C HD, STV HD, FIVE HD 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는 공영방송사인 ORF임. 최근 민영 방송사들의 출현으로 ORF의 시장점유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ORF1 과 ORF2는 2010년 37%의 평균점유율 합계를 기록했으나, 이는 2006년과 비교하여 10%가량 하락한 수치임. ORF2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채널로서 평균 22.5%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음.
- 독일 텔레비전 역시 오스트리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의 민영방송사는 오스트리아 버전의 채널들(중요 채널로는 RTL Österreich, Sat1 Österreich, ProSieben Austria가 있음)을 따로 가지고 있음. 해당 방송사의 채널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2010년 25%를 넘었음. 독일의 공영방송사 채널들은 합쳐서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민영방송사중 2003년에 개국한 ATV는 2010년 3.4%의 점유율을 기록했음. 최근 몇 년간 민영 방송사 채널들의 런칭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Burda Verlag의 Austria 9 TV(2007년), ProSiebenat.1 Media AG의 Puls 4 (2008) 등이 있음. 2009년에는 Salzburg TV가 Serbus TV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영채널이 되었음.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AGTT/GfK Teletest)

- 공영방송인 ORF의 권한과 재정 상황에 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방송법이 2010년 7월에 통과되었음. 이에 따라 KommAustria는 ORF를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얻음. ORF의 재정은 해당 방송사의 이윤/공익 추구 활동 여부에 따라 EU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공영방송사는 공익적인 활동의 역할과 비중이 늘려야 함. ORF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앞으로 ‘공익 테스트(Public interest test)’를 거쳐야 함.

○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주 채널 두 개는 RAI Uno (제 1 공영채널)와 Canale 5 (Mediaset)로 2010년 기준 각각 20.7%와 18.8%를 차지하고 있음. RAI는 이탈리아 국내에서 20개 이상, 국제적으로는 5개가 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2010년 5월, 모든 RAI 채널들은 0.6%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였고, 반면에 Mediaset 그룹의 엔터테인먼트 채널 세 개(Canal 5, Italia 1, Rete 4)는 2.7% 하락함. 아날로그 지상파 채널인 La 7 (대략 3% 안팎)과 어린이 채널 Boing TV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널들의 시장 점유율은 1%미만임.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 Auditel/ AGB Nielsen Media Research Italy)

- 이탈리아의 방송 시장에 진출한 채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몇몇 거대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예상 밖임. 이탈리아에는 현재 400여개의 전국 채

널과 600여개의 지역 채널이 있으나 2010년 매출 실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영방송사인 RAI와 민영방송사인 Mediaset과, Sky Italia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News Corporation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자들임.

- Mediaset 그룹은 42개의 이탈리아 어 채널(그 중 한 개는 해외로 송출됨)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 그룹은 Cuatro에 관여하고 위성사업자인 Digital+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스페인에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튀니지의 Nessma TV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News Corporation은 자회사 Sky Italia와 Fox Italia를 통해 90개가 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그 중 25개의 채널은 다른 나라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 자회사인 Fox International은 독일, 베네룩스 3국, 발틱 국가들에 송신하고 있음.

○ 체코

- 체코의 TV시장은 민영채널인 Nova TV(Central European Media Enterprise 소속)가 2010년 기준 32.8%의 시장점유율로 지속적으로 독점적인 지위에 있음. 이는 2006년보다 9% 하락한 것임. 공영방송사인 Czech Television은 CT24와 CT4의 성장에 힘입어 28.3%의 시장점유율로 2위를 기록함. 3위 사업자는 민영방송사 Modern Times의 Prima TV(16.4%)로, 이는 2006년보다 4% 가량 하락한 수치임.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 ATO/ Mediaresearch)

- 주요 사업자 모두가 최근 3-4년새 추가 채널을 런칭하였음. Nova Family TV는 Nova Sports, Nova Cinema 등을 새롭게 시장에 내놓았고, 다른 주요 채널들을 HD로 방송하기 시작함. 공영방송사에서는 스포츠와 뉴스 채널(CT4 Sports, CT 24)을 추가하였으며 HD 채널(CT HD)을 런칭함
- Prima TV는 2009년 엔터테인먼트 채널 2개를 새롭게 선보임. Prima Cool은 남성 시청자를, R1은 여성 시청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 R1은 아직 공식적으로 런칭한 상태는 아니지만 Prima Cool과 DTT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음.
- 2011년 9월 체코 국회는 시청각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채택하였음. 이는 공익채널에서의 쇼핑(teleshopping)과 광고, 체코의 영화 예술 기금에 관련한 법안을 포함하고 있음.

○ 키프로스

- 키프로스의 방송시장은 공영방송사인 CYBC의 채널인 RIK1, RIK2, RIK HD, RIK Sat이 통합 시청률 19.7%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으로 방송되는 민영채널인 Sigma, ANT1, Mega, Plus TV가 각각 21.3%, 20.7%, 14.3%, 4.1%로 이전보다 시청률 상승을 기록함.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AGB Nielsen Media Research Cyprus)

- 그리스의 상업 방송국의 자매 채널인 ANT1과 Mega는 2011년에 런칭하였고, 그 해

여름에는 무료 지상파 채널인 Star Channel Cyprus가 유료 지상파 채널인 Alfa TV를 대체하면서 같은 해 말 추가로 채널 한 개가 런칭할 예정임.

- DTT로의 변화가 키프로스의 지역 방송국에 특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침. 지역 DTT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하여 몇몇 지역 방송국은 전국 방송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갔고, 다른 지역 방송국들은 방송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방송국을 일시적/영구적으로 폐쇄하기도 함.
- 짧은 시범 기간을 거친 후 아날로그 지상파는 2011년 7월 1일 송출이 중단되었음.

○ 폴란드

- 현재 폴란드의 방송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료 TV 사업자는 공사인 TVP와 민영사업체인 TVN (ITI 그룹) 과 Polsat임. TVP1은 시장점유율 19.4%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2위인 공익 채널 TVP2는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5% 이상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보임. TVN과 Polsat은 시장 점유율의 점차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 2006년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6.7%과 16.1%였으나 2010년에는 각각 15.2%와 13.8%에 그침.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AGB Nielsen MEdia Research)

- 위에서 언급된 채널 4개 이외에도 시청률 1%에서 5%사이를 기록하고 있는 채널 여섯 개가 있음. 시청자의 분산으로 인하여 방송 시장의 거대 사업자들은 주 채널의 시청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하여 전문 채널의 수를 늘려 가고 있음. 그 예로 9개의 전국 대상 채널과 16개의 지역 채널을 가지고 있는 TVP와 10개의 직영 채널을 가지고 있는 TVN, 각각 14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Polsat Cyfrowy와 Canal+ Cyfrowy 등의 미디어 그룹은 전문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 3년간의 조정 끝에 방송 수신료 관련 법률이 2010년 8월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음.

○ 프랑스

- 프랑스 방송시장의 1위는 TF1이지만, 해당 채널은 3년간 연속으로 시청률 30% 이하를 기록하며 2010년에는 일일시청률 24.5%정도에 그치는 데 머물렀음. (2006년보다 7.1% 하락함) 공영채널인 France 2와 France 3도 각각 16.2%와 10.7%을 기록하며 2-3위 자리를 지켰으나 하락세에 접어든 것은 동일함. 특별히 M6(10.4%)이 France 3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태이며 11개의 채널이 1-4% 사이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TMC (TF1 그룹 소속)나 W9 (RTL 소속) 등의 free-to-air DTT 채널들을 합친 것임. 새로운 free-to-air DTT 채널들은 2010년 19.7%의 통합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음. 이는 2009년의 15.2%, 2008년의 11.1%에 비해 상승한 수치임.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Médiametrie/Médiamat)

- Canal+ 그룹의 2007년 TPS 패키지로부터의 유상취득은 2011년 9월 경쟁당국 (Competition Authority)이 제 3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는 약속을 해당 회사가 엄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Canal+의 합병과 벌금 3천만 유로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번복함에 따라 벽에 부딪히게 되었음. 추가적으로 채널 독점 권리 등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Canal+와 Orange 사는 2011년 7월 공식적으로 Canal+의 Orange Cinéma Séries (Orange의 pre channel 5개와 fiction channel)에 대한 33.33%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였음.

- 2008년 방송 통신 서비스 관련 분야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프랑스 내에서 논쟁을 불러왔음. 2010년 1월 공영 방송사들은 한 개의 사업체(France Télévisions)로 통합되었음.

○ 핀란드

- 디지털 방송에 있어서 핀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임.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은 2007년 송출이 중단되었고, 케이블 TV 방송 역시 2008년 이후로 전면 디지털화 되었음. 핀란드는 2세대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의 단계(DVB-T2)로 접어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방송시장의 균형을 급격하게 깨뜨리는 형태로는 진행되지 않음. 방송 시장의 대규모 사업자는 공영방송사 그룹인 YLE (YLE TV1, YLE TV2, YLE Teema, 스웨덴어 채널인 YLE FSTs), 민영방송사인 Sanoma (Nelonen, JIM, LIV), 스웨덴 방송사인 Bonnier (MTV3, Sub, Nordic Canal+ pay-TV 채널들)임.
- 공영방송사인 YLE는 2010년 시장 점유율의 회복에 힘입어 시청률 45.1%를 기록하였음. 특별히 YLE TV1은 21.6%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YLE TV2는 시청률 상승으로 원래의 수치인 19.4%를 회복하였음.
- 민영방송사의 채널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MTV 3은 2006년보다 8% 떨어진 21.5%를 기록하였음.

(자료 출처: Eurodata TV Worldwide/Finnpanel)

- 핀란드의 멀티 채널 시장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독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개가 넘는 사업체가 있지만, 우위에 있는 몇몇 사업자에게 집중됨. 특별히 2010년 7월, DNA는 Samona TV의 Welho 패키지 등 케이블에서의 활동을 인수하였음.
- 케이블 TV가 유난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성 TV나 IPTV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